

**콩고민주공화국, 부족간 유혈분쟁 재발로  
내전 종식과 평화 정착에 대한 전망 불투명**

□ 부족간 유혈분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 콩고민주공화국(DRC, 舊名 자이레) 북동부 Ituri 지역에서 지난 3일 부족간 유혈분쟁이 일어나 최소 96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DRC 주재 UN 사절단(MONUC)의 Hamadoun Toure 대변인이 6일 밝혔다. 이번 유혈사태는 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는 Hema族과 Lendu族간에 벌어진 충돌로 발생한 것임.

  - o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Ituri 지역의 행정 중심지인 Bunia市 근교에 위치한 Drodro 마을을 위시한 14개의 Hema族 촌락을 Lendu族 민병대가 기습하면서 유혈사태가 시작되었음.
  - o Ituri 지역은 금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1998년에 시작된 DRC 내전의 초기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반군단체, 부족 민병대 및 우간다軍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어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 반군단체의 하나인 콩고애국자동맹(UPC)측은 UN의 요청에 따라 Ituri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띠고 동 지역에 주둔중인 우간다軍이 렌두族의 공격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간다軍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을 공식 부인하였음.
- 이번 사태는 앞서 지난 2일 DRC 정부와 동국의 양대 반군단체인 콩고민주주의대회(RCD) 및 콩고해방운동(MLC)이 4년 이상 계속된 내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에 서명한 지 하루만에 일어났음.

- DRC는 지난 1998년 8월 인접국인 르완다와 우간다의 후원을 받는 동부의 반군세력이 중앙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력사태를 일으키면서 내전에 휩싸였음.

## □ 평화협정 체결 하루만에 유혈사태 발생

- 앞서 4월 2일 DRC의 Leonard She Okitundu 외무장관, RCD의 지도자 Adolphe Onusumba, MLC의 Olivier Kamitatu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 휴양지 Sun City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의 대통령들이 배석한 가운데, DRC 정부군과 반군간에 4년 이상 지속되어 온 내전을 종식시키고 거국적인 과도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였음.
- 2001년 10월 15일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19개월간 계속된 汎콩고회담(ICD: Inter-Congolese Dialogue)의 성과인 동 협정에 의하면, Laurent Kabila 콩고민주공화국 前대 대통령이 2001년 1월 암살된 이후 권력을 승계한 Joseph Kabila<sup>1)</sup> 現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국가원수로서 재임하며, 이 2년이 경과한 뒤 상황에 따라 1년 더 재임할 수 있음.
- 동 기간 중 Kabila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동국이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될 것임.
- 한편, Kabila 대통령은 4인의 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들은 양대 주요 반군측에서 1인씩, 그리고 정부측 인사 1인 및 야당 인사 1인으로 구성될 것임. 장관직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분배되며, 반군 전사들은 정부군과 경찰에 통합될 것임.

1) Laurent Kabila 前대통령의 아들로, 금년 31세임.

- 총 362명의 ICD 참석대표들은 동 협정에 따른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Kabila 대통령이 4월 6일 새 헌법을 선포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4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Pretoria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었던 정부군 및 반군 최고사령관들간의 군사협정에는 RCD만이 서명함으로써 분쟁 재개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였음.

## □ 평화 정착에 대한 전망 불투명해져

- UN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 8월 DRC의 내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50만 명 이상의 DRC 국민이 희생되었는데, 그 절대 다수가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및 보건 시스템 붕괴에 따른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음.
- 또한, DRC의 광물자원에 대한 이권을 노린 인근 국가들이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전 당사자들을 배후 지원함에 따라, 동국의 내전은 아프리카의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음. 즉 앙골라, 나미비아, 차드, 짐바브웨는 DRC 정부군을, 르완다와 우간다는 반군단체들을 지원하여 군대를 파견하였음.
- 이번 유혈사태 발생은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DRC의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이행과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 정착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DRC가 다시 내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전문연구원 오경일 (☎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